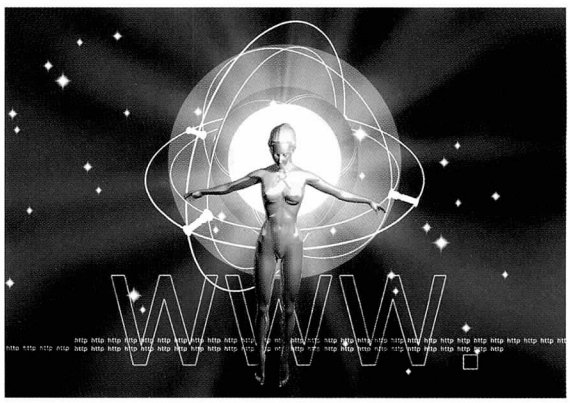
벤처 御天歌

숭실대 교수 · 벤처지원포럼 회장/오해석



IMF를 덤으로 얹어 인수한 현 정권은 출발 때부터 왠지 분위기가 썰렁하다 못해 음산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무렵 매스컴이나 국민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톱 10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그 당시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IMF, 외채, 환율폭등, 실업자, 취업대란, 부도, 파산, 모라토리움, 가출, 자살, 그 어느 것도 우리 귀에 기분좋게 들리지 않는 흉물뿐이었다.

이런 쓰라린 과거를 딛고 IMF라는 죽음의 다리를 무사히 건너올 수 있게된 바탕에는 벤처라는 모험정신으로 무장된 야전군의 전과를 간과할 수 없다.

IMF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정부는 20,000개의 벤처기업 창업지원, 벤처창업을 통한 50만 명 일자리의 창출을 큰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의 실현에 박차를 가해왔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취업 걱정보다는 아버지의 해고가 더 염려되는 마당에 어느 젊은이가 폼 나는 곳에 취직하여 제 날짜에 딱딱 봉급 받기를 기대할 수 있었으랴!

봉급은 안 받아도 좋으니 출근 시켜주는 곳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취업예비군들은 벤처붐을 타고 과감하게 벤처업계에 뛰어들었다. 몸을 날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대기업 취직 대신에 벤처창업에 참가한 신예기업가들은 몇 달씩이나 봉급을 받지 않고도 열심히 일했으며, 심지어 돈을 빌려 투자까지 서슴치 않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젊은이들의 이런 피눈물을 담보로 한 벤처는 IMF를 뛰어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대박 터트린 벤처사업가 뉴스, 몇 일 간격으로 보도되는 벤처스타의 탄생은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말았다. 취업관, 재테크방식, 결혼관, 인생관이 바뀌었다. 한 예로 벤처기업가가 미혼여성 결혼대상 톱으로 랭크되었다.

벤처가 재벌구도를 흔들기 시작했다. 소위 똘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재벌기업 직원 중 인재중의 인재격인 초고급 인력이 벤처하겠다고 기업을 떠나는 일이 속출하였다.

대기업에 남아서 봉급날만 기다리며 일하는 인력은 쭉지기 뿐이라는 넌센스 같은 험담이 오가기도 했다.

급기야 재벌 기업의 정책이 벤처수용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사내벤처 육성, 분사제도, 스탁옵션이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역대 정권이 그렇게도 빈깡통 두드리듯 소리만 지르고 해내지 못한 재벌 개혁이 벤처에 의해 성공되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재벌이 미국형 대기업으로 서서히 변모되어가는 조짐이 보였다.

작년 말 현재 11,000여 개의 국가지정 벤처기업, 물경 일 조원에 이르는 벤처지원국가예산, 거래소시장을 능가한 코스닥 상장 기업수는 우리 벤처기업의 현주소를 수치로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한 벤처기업의 주식가치가 어느 중간급 재벌기업 전체를 합친 가치를 능가한다. 개인재산 1000억원을 상회하는 40대 벤처기업가가 재계판도를 바꾸고 있다. 간판급 여성앵커가 벤처기업가에게 시집을 갔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나라 벤처의 뒷 얘기로 엮어 벤처별곡(別曲)을 써도 손색이 없는 소재가 되리라 본다.

우리 나라 정치가 중 목소리 굵은 어느 분이 즐겨 쓰는 휘호가 있다.

대도무문(大道武門)이라고.

"큰길에는 문이 없다"라는 직역은 "큰 뜻을 품고 당당히 나아가는 인생 길에는 막힐 것이 없다"라는 의역으로 풀이된다. 그렇다. 큰 뜻을 품고 정도경영을 하는 벤처기업에게도 앞길을 가로막는 문(門)은 없어야 당연하다. 하지만 벤처가 가는 길에는 왜 그리도 문(gate)이 많은지. 진씨네문, 이가네문, 21통과(Pass21)문, ... 이외도 아직 20여개 문이 더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벤처인들이 가고 있는 길은 결코 대도(大道)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금년은 현 정부가 마감을 해야 할 해이다.

벤처정책은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이고 또한 성공한 정책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싶다. 단지, 몇 개의 탈선 벤처가 도도히 흐르는 벤처라는 강을 흙탕물로 오염시켜버렸다. 이제 환경정화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벤처를 살려야 한다.

벤처기업 인증, 코스닥심사, 정부자원자금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놓고, 정정당당하게 대처할 면모를 보이자. 이사회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함으로 사장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개인 전유물같은 이미지를 탈피했다.

그리고 정치하시는 양반들, 고관 나리님들, 제발 벤처 좀 건드리지 마세요. 기업은 기업답게 가도록 놔두십시요!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말씀하신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시대에 맞추어 편작하여 이렇게 말해본다. 뿌리깊은 벤처는 정치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성공한 벤처스타들을 연일 매스컴에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들 수 있겠다. 마치 10대와도 같은 순박한 표정, 강한 벤처 신념, 정도벤처경영마인드, 독보적인 기술력을 두루 갖춘 그 분의 길목에도 왜 정치바람이 불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불어왔겠지.

정치판을 핵으로 한 강풍이 불고 또 불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벤처기업의 발전사를 모은 벤처실록(實錄)을 쓰게 된다면 그 제목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벤처 御天歌'